

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자국 내 건축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건축 교육, 건축사 계속교육, 개업 건축사 훈련 등 건축설계분야의 폭넓은 협조를 이뤄가기로 협의하였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범용하고 있는 UIA Accord의 적용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교환,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제 기구 ARCASIA와 UIA 제4지역협력을 비롯한 APEC 관련 국제 조직에서의 공조 등도 동시에 논의되었다.

4월 28일(수)에는 UIA Forum 2010이 Impact Exhibition Hall에서 개최되었으며 Billie Tsien이 발표했는데 Yale 대학, Harvard 대학, Texas 대학, Pennsylvania 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한 Billie Tsien 건축사의 현대감각에 합당한 작품들의 발표에 방청객의 찬사가 있었으며, 방청객의 관전평이 대단히 호화로웠다. Billie Tsien 건축사의 작품세계에 상당한 의욕적인 장래가 보였다. 그러나 정치 불안으로 인해 발표자로 선정되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강의를 거절한 Netherlands의 Wiel Arets와 중국의 Zhang Ke의 불참은 Forum의 가치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민석 씨가 4월 29일(목) 아침 10시부터 아주 폭넓은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발표 작품으로는 북경 EXPO 한국관, Pixel House, Dalki Theme park, Boutique Monaco, Xi gallery, Mue shop, Bitform gallery Seoul 등 그동안 작업했던 여러 작품을 선보였다.

이 외에 다양한 작품 50여점을 설명과 함께 준비한 영상과 발표로 아주 멋진 Forum을 진행하여 참석한 세계건축사연맹뿐 아니라 태국의 참가 건축사에게도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 건축사의 왕성한 활동은 우리에게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태국 건축사 Amata Lumphai, 인도 건축사 Bijoy Jaun, John Ding, Malyzlei, 태국 건축사 Twitee Vajrabhaya Tepakum, 호주 건축사 Kerstin Thompson의 꿈 많은 작품들을 컴퓨터 작업으로 설명하여 많은 현지 건축사들의 찬

사를 받았다.

최종 연사로 선정된 일본의 건축사 Riken Yamamoto 씨 역시 초청을 수락한 후 정국 불안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4월 30일(금)에는 오후 Bijoy Jain씨의 강연으로 Forum을 계획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마쳤다. 인도의 Bijoy Jain의 강연은 그의 독특한 건축사로서의 행위가 청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건축주와의 만남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설계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감리까지 본인이 직접 관리 통제하여 그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생활 문화에 적합한 건축물이 창조되었다. 이를 위한 재료선정, 공법선정, 인력 활용 등 지역의 인문학적 요소를 감안한 건축사의 배려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Forum과 병행하여 4지역 이사를 포함한 UIA 임원회의와 ARCASIA 대표단 회합이 있었다. ARCASIA 대표자회의에서는 다가오는 ACA-14 총회 개최와 관련된 파키스탄의 보고가 있었다. 전 이사회에서 야기되었던 자살 폭탄 테러를 비롯한 정국의 불안에 따른 내부 조치 사항이 쟁점이 되었으나, 파키스탄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회장단의 현장 사전조사 내용들이 설명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건축사협회(IAP)에서는 각 행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특히 Student Jamboree와 관련된 인원수 조정, 장소의 보안상태 점검 등이 주안점으로 강조되었다.

다음날 주최 측에서 제공한 시내 관광을 끝으로, 늦은 시간에 귀국길에 오르며 5박 6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

김지덕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 마이애미 총회 참관기(2010 AIA Convention, Miami)

이번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총회는 6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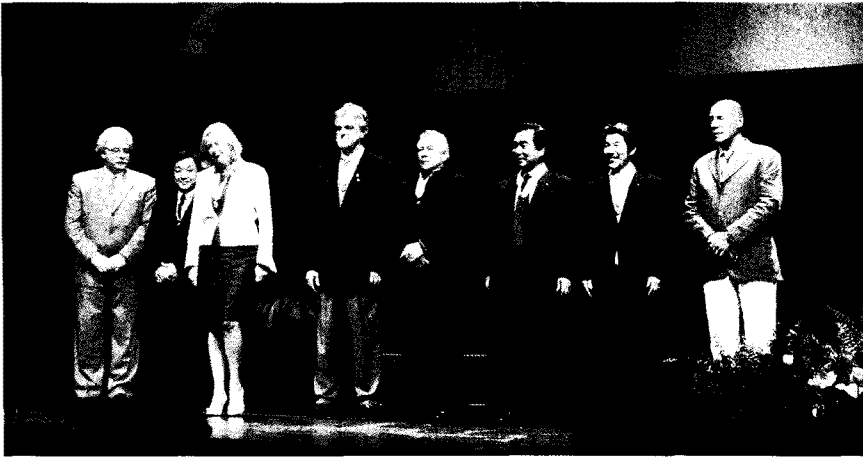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우리 협회의 최영집 회장이 FIKA의 대표회장으로서 참석하고, 이창섭 부회장, 류춘수 전 부회장, 신춘규 이사, 김성민 국제위원장, 그리고 국제위원회의 김지덕, 이영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고, 가협회에서는 이상림 회장을 비롯하여 10명의 대표단 및 참관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협회의 최영집 회장과 가협회의 이상림 회장이 Hon.AIA(미국건축사명예회원)를 수여받고, 김정식 건축사가 Hon.FAIA(미국건축사특별명예회원)를 수여받았다.

### 2010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미국건축사협회의 연례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총회는 크게 3가지의 행사로 구분된다. AIA 골드메달 수여식 등의 각종 수여식과 기초연설을 주로 하는 일반 강연(General Session)과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자재전시(EXPO) 3가지이며, 이 3가지 주 행사를 중심으로 각 종 지역건축사회 및 동문회 등 다양한 저녁 행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3일 동안 건축사들의 축제분위기로 들뜨게 만든다.

이번 총회는 '다음 10년을 위한 설계: Design for the New Decade' 라는 주제를 갖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많은 건축사 회원들과 관계사들이 참석하여 총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준 성공적인 총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서술적인 방법으로 총회의 참관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였으나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미국 총회의 참관기를 쓰려고 한다.



AIA 총회 General Session (6/12)\_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이상림 회장 Hon.AIA(미국건축사명예회원) 수여

### 일반강연 (General Session)

일반강연은 총회의 가장 상징적인 행사 중 하나로 매일 한 번씩 중요한 시상식과 기조 연설을 통해 협회의 건축적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건축사 회원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특이한 것은 회장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고 발표하면서 우리 행사와는 다르게 주최자의 시장이나 커미셔너 외에는 초청하는 사람 없이 진지한 건축사들만의 행사를 이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다.

일반강연의 마지막 날 골드메달 시상식에서는 건축사들이 거리낌 없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가슴 진하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다.

**첫째 날 일반강연** 개막식과 더불어 기조 연설자로 엘 고어 전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다니엘 핑크(Daniel Pink)가 “현대 경제에 있어서 우뇌 사고의 역할”을 주제로 창조적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연하였다.

기조 연설 전 시상식에서는 공공건축물 부문에서 공로가 인정된 건축사에게 주는 에드워드 캠퍼 어워드는 공공건축사 James Logan Abell, 건축사사무소 부분에서 1년간 탁월한 실적을 보인 사무소에 주는 상인 Architecture Firm Award 부문에선 Pugh + Scarpa 건축사사무소가, 그리고 25년 건축상엔 킹 압돌 아지즈 공항의 하지 터미널(SOM 설계)이 수상했다.

**둘째 날 일반강연** 기조 연설은 유명 사진 작가인 크리스 조던(Chris Jordan)이 “소비와 의무”를 주제로 무절제한 소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건축사협회와 미국건축학회(ACSA)가 공동으로 건축교육의 공로자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토파즈 메달은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세계적인 건축사인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건축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프린스턴대학 등 많은 학교에서 건축교육을 해온 공로가 높게 인정을 받았다.

또한 건축사의 사회적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Whitney M. Young Jr. Award는 벤자민 바가스가 수상했다.

**마지막 날 일반강연**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가 건축사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골드 메달은 피터 볼린(Peter Bohlin)에게 돌아갔고, 수상자와 이루어진 건축에 대한 대답은 미국협회의 공식건축잡지인 Architectural Record의 편집장인 로버트 아이비가 이끌었고, 이 대답을 통하여 그의 건축 철학을 들여볼 수 있었다.

대담 후 참석한 모든 건축사 회원과 가족들이 거리낌 없이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날은 골드메달 수여식 이전에 미국건축사협회와 업무제휴를 맺은 국제단체장에게 수여하는 Hon.AIA(명예회원)이 있었고, 우리 건축사협회의 최영집 회장 외 6명의 단체장(영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호주, 코스

타리카)이 Hon.AIA를 수여받았다. 또한 차기 회장이 나와서 차기 총회 개최자인 뉴올리온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돋보였다.

### 계속교육 (Continuing Education)

계속교육은 행사 전날인 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는 미국건축사협회가 주도하여 계속교육제도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건축사등록원 및 각 주의 건축사면허 관리청에서도 이 계속교육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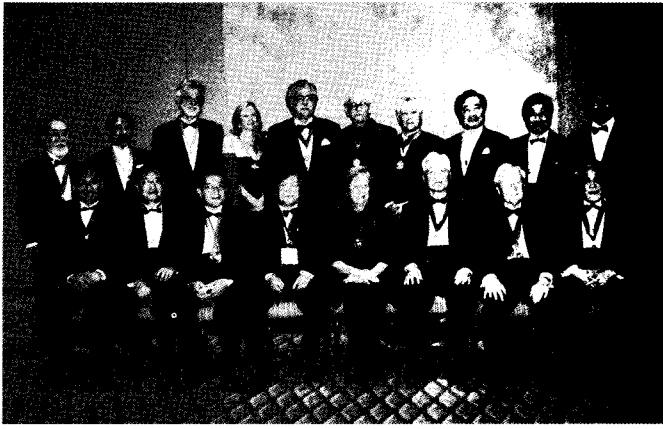
미국건축사협회는 회원들에게 1년에 18학점의 계속교육이수를 요구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이중 일정부분은 HSW(Health, Safety and Welfare: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 최소 8학점 이상)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최소 4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행하고 있어 건축교육에서의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 이수 받은 학점은 NCARB(건축사 등록원)이나 각 주와 연결되어 있어 면허유지를 위한 계속교육을 요구하는 주의 학점으로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계속교육의 공급자를 다양하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건축사 개인 또는 건축자재 생산자에 이르기까지 건축사들이 건축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총회기간 동안 300여 개가 넘도록 제공하고 있다.

물론 건축사가 어디서든 계속교육을 받고 그 자료를 기록함으로써 요구된 학점을 채울 수도 있지만 많은 건축사들이 1년을 일부러 기다려 총회를 통해 휴가 겸 계속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참가 하며, 미국건축사협회는 동반자를 위해 스노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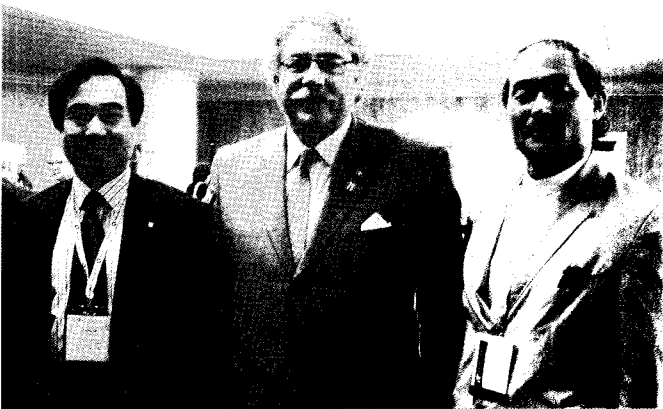
즉, 미국 건축사들은 1년에 한번 있는 이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4일간의 행사에 항공료 약 300불, 호텔 및 식사 800불, 등록비 최저 450불 등 약 1,500불에서 2,000불 정도(한화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에 해당)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참가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Hon.AIA(미국건축사명예회원) 및 Hon.FAIA(미국건축사특별명예회원) 단체사진



Convocational Dinner(공식초청만찬)에 참석한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



미국건축사협회(AIA) George H. Miller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 국제담당 신춘규 이사



미국건축사협회(AIA) Marvin Malecha 전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 국제담당 신춘규 이사

## 자재전시 (Expo)

마이애미비치 컨벤션센터의 대형 전시장에 800개 이상의 업체가 부스를 마련하여 각종 건축자재와 공법을 선보였으며 그중 일부 업체는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건축사에게 교육 학점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특이한 점은 전시장 안에 건축사들이 쓸 수 있거나 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동문들이 모임 수 있는 Town Square를 제공하고, 한편에서는 연방정부가 전시 및 세미나를 통해 건축사들이 연방정부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올해는 경기 타인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세미나가 대성황을 이루어 세미나 시작 몇 시간 전부터 긴 줄을 서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 기타 행사

수상작 전시\_AIA 건축상, NCARB 건축상, 지역 건축상, 학생계획 건축상 등 컨벤션 센터

터의 곳곳에 각 종의 건축상 수상작을 부분 별로 배치 전시를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눈요깃거리를 제공하였다.

**AIA Bookstore**\_AIA가 각종 출판사와 업무를 제휴하여 건축관련 실무 및 작품집 등을 판매하고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되 회원에게는 일정부분 할인 혜택을 주며, 기조연설자 및 유명 건축사 등의 사인회 등을 개최하였다.

특이할 만한 점은 협회가 굴지의 건축서적 출판사(맥그로우힐, 윌리 등)와 제휴를 맺어 협회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여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점이며, AIA 로고가 들어간 문구, 기념품 등을 다양하고 멋지게 디자인하여 판매함으로써 건축사의 자부심을 높이는 방안은 한번 우리 협회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ArchiPAC(Architectural Political Action Committee)**\_AIA의 한 위원회로 기금을 모금하여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이

를 통해 건축계의 목표를 정치적으로 달성하고자 다양한 행사 및 모금 운동을 하였다. 이번 기금조성에서는 학교 동문별, 지역별 경쟁구도를 만들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FAIA 회원증 수여식(Investiture Ceremony)**\_Fellows of AIA는 일종의 원로회와 비슷한 미국건축사협회 내의 또 다른 그룹으로 총 회원수의 2~3% 정도만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작품활동이나 교육 및 실무 등 다섯 개의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건축사 회원들 중 각 지역 지회의 추천을 받고 엄중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신임 FAIA 및 Hon.FAIA 에게 수여식을 엄숙하게 진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새로 지은 마이애미의 Adrienne Arsht Center에서 130여명에게 거행하였고 우리나라의 김정식 건축사가 Hon.FAIA 회원증을 수여 받았다.



AIA 총회에 참가한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축가협회 대표단

국제 건축사협회장 포럼 이번 포럼의 참석자는 UIA 회장인 루이스 폭스, 아시아건축사협회 차기회장인 조지 구니히로, 호주 회장인 칼 펜더, 영국의 회장인 루스 리드, 일본건축가협회(JIA)의 타로 아시하라 회장,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팬아메리카건축사협회의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미리 배포한 의제인 “국경을 넘는 국제적 실무에서의 건축사들이 초점을 두어야 할 이슈들과 협회의 역할”에 대하여 각국의 대표가 돌아가며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FIKA 회장인 우리 협회의 최영집 회장이 발표하였다.

공식 초청 만찬(Convocational Dinner) 정장을 입는 가장 공식적인 만찬으로 FAIA의 회장단이 초청하여 약 700석을 가진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새로이 FAIA가 된 회원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축하하는 자리로써 만찬과 댄스파티로 이어지는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품격 있는 행사이다.

차기회장단 선거 총회 기간 동안 직접선거를 통해 차기회장단을 선출하여 1년 동안 현 회장 밑에서 업무를 익히고 그 후에 회장단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수석 부회장으로 제프리 포터(Jeffery Potter)가 선출되었다.

차기 총회 2011년에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되었으며, 마지막 날 일

반강연에서 홍보를 통해 각인을 시키고 많은 참석을 유도하였다. 특히 뉴올리언즈는 재즈의 도시이나 몇 해 전 카트리나로 심각한 침수의 피해를 입고 복구 중이며, 설상가상으로 올해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환경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도시로써 많은 건축사들의 관심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맺음말

이번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2010 AIA 총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멕시코만의 원유 유출 등 굵직한 사고를 등에 업은 총회였지만, 전통적인 AIA 총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이벤트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으며 우리 협회가 이런 점들은 되새기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 미국건축사협회 소개

미국건축사협회는 우리와 같은 임의 단체로서 전체 약 15만명의 면허건축사 중에 약 82,000명의 건축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적인 건축사 단체이다. 특히 미국건축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골드메달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으로 미국건축사협회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부분이다.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으며 각 주 별로 건축사 지회를 두고 있다. 특이한 것은 국제지부가 유럽, 홍콩, 일본 등에 있으며 앞으로 미국건축사가 활동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지부를 두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 회장은 총회에서 직선제로 하며 임기 1년 전에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여 경험을 쌓게 한 후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년 2008년 부산 아카시아 대회에 참석했던 마셜 퍼넬(2008), 마빈 말레케(2009)와 금년의 조지 밀러(2010), 그리고 클락 매너스(2011) 등으로 승계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수석 부회장으로 제프리 포터가 선출되었다. 미국건축사협회는 미국건축학회(ACSA,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Architecture), 그리고 미국건축학생회(AIA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Students), 국가건축사등록원(NCARB,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 국가건축인증원(NAAB,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건축사 회원들의 사회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되길 바란다.

- 총회가 장관 등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고 모시는 행사가 되기보다는 회장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건축사 자체의 자긍심을 갖는 행사로써 인식이 되도록 진행되었다.

- 총회가 건축사들이 1년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행사로써 건축사들이 스스로 1년을 준비하고 저축하여 휴가의 일부로써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자리 잡았다.

- 계속교육도 전문 건축사들이 교육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실무선에서 건축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후 철저한 평가를 통해 교육의 품질과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학회, 학생회 등이 함께 축하하고 건축사협회가 중심이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 AIA 골드메달은 오랫동안 건축의 삶을 살면서 작품 등으로 뛰어난 열정과 재능을 보인 세계적인 건축사를 선정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였으며, 시상시 참석한 건축사들이 기립박수를 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는 정말 가슴을 진하게 울리는 기억되는 장면 중 하나였다. 올해는 피터 볼린이 골드메달을 수상하였다. ■

신준규 / 국제담당 이사  
김성민 / 국제위원회 위원장